

漁港의 觀光化  
漁村의 公園化

會 訓  
創 奉 誠  
意 仕 實

# 漁 港 消 息

**KFPA**  
대한어항협회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번지 인의빌딩 2층  
T. 3673-2851 ~ 4/3673-2856/568-6651  
F. 3673-2857 www.kfpa.or.kr

[月刊] 第187號 발행점/편집인 裴 平 岩 · 인쇄인 金 在 克 ISSN 1227-7053 등록일:1988년2월19일 2003年 7月 25日(金曜日) [1]

## 어항청소선 상반기 오염물 62만140kg 수거

### 어촌 정주환경 개선 · 어항정화 인식제고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올 상반기 동안 국가어항과 연안 그리고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과 지방어항에 378일간 출동, 연 57개의 항 및 연안에서 부유물 4만3천840kg, 침전물 23만8천800kg, 항행장애물 33만7천500kg 등 총 62만140kg 오염물을 수거했다.

한국어항협회는 그 동안 어항청소에 대한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틀마련과 함께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청소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쓰레기 투기방지도 등 어항관리와 관련한 예방지도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연안 시·군 및 일선수협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효율적인 어항청소와 어항환경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또한 어업인들의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을 감안, 바다환경보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어항청소선은 항간이동이나 원거리 출

동에 어려움이 있어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어항과 연안수역의 원활한 청소를 위해서는 어항청소선의 증톤 및 증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어항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

‘국가어항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7일 중앙대학교 본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해양수산부가 국가어항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어항은 105개로 2002년까지 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68개항의 기본시설을 완공하였으나, 완공이후 어항기능

시설 부족 등 관리 미흡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청회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격포, 서망, 국동, 돌산, 감포, 양포, 등 6개 어항의 실태와 개선방안, 어항시설사용료 징수체계 및 사용료의 적합성과 어항관리를 위해 부족한 재원 확보대책 그리고 어항관리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어촌인이 어촌을 떠나고 있다

### 지난해 어업인구 30년 전보다 1/4 이하로 줄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이 해마다 어촌을 떠나면서 어업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2002년 해양수산 주요통계’에 의하면 지난해는 어업인이 21만5천명으로 1970년의 91만2천명에 비해 69만7천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어업인의 남녀구성도 각각 10만7천명으로 남녀비율이 50%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유류비 등 경

비의 증가와 수산자원의 감소, 인접국가와의 어업협정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어업인 인구가 좀더 줄어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어업인구 변화추이

연도별	계	연 령 별	
		50세 미만	50세 이상
1970	912,612	796,630	115,982 (13%)
1980	725,314	614,372	111,001 (15%)
1990	496,089	372,464	123,625 (25%)
1995	347,210	235,211	111,999 (32%)
2000	251,349	152,792	98,625 (39%)
2001	234,434	129,157	105,277 (45%)
2002	215,174	120,122	95,052 (44%)

이러한 어업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업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특히 '97년말 IMF이후 어촌경제의 침체에 따른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다.

'70년도에는 50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가 13%에 불과하였으나, 어촌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젊은층의 어촌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어 2002년도에는 노령층 어업인구가 44%를 차지하는 등

## 44개 국가어항 항공사진촬영

### 한국어항협회 5차 어항화보 제작기로

한국어항협회는 44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촬영에 의한 화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임, 어항 전경 항공사진촬영, 시설계획평면도, 인구 어선수 어획량 등의 항세와 건설현황 등을 수록할 계획이다.

내년 1월초에 발행할 이번 어항화보 제작은 다섯번째 착수하는 것으로 4차까지의 화보집에서 누락됐던 어항을 위주로 하며, CD로도 제

작할 계획이다. 어항화보는 어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항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항의 관리환경정비사업 및 대내외 홍보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그 동안 정부용역사업으로 4차에 걸쳐 항공사진촬영 및 어항화보를 제작했다.

이번 5차 어항화보에 수록될 44개 어항은 다음과 같다.

- △인천(5개항) : 장봉, 덕적도, 울도, 어유정, 선진포
- △충남(5개항) : 삼길포, 모항, 남당, 오천, 흥원
- △전북(2개항) : 어청도, 구시포
- △전남(13개항) : 우이도, 수품, 보옥, 여서, 도장, 득암, 회진, 초도, 풍남, 여호, 낭도, 연도, 소흑산도
- △경남(9개항) : 삼덕, 능양, 매물도, 호두, 동암, 대포, 구조라, 원전, 광암
- △경북(3개항) : 구산, 오산, 남양
- △강원(6개항) : 궁촌, 안목, 수산, 공현진, 거진, 대진
- △제주(1개항) : 하효

지난 6월11일 오전 11시, 우리나라 해양연구의 메카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매우 뜻 깊은 준공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이름하여 전설의 섬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 준공된 해양과학기지는 총사업비가 212억원이 투입됐으며, 이어도의 남쪽 경사면 수심 40m 지점에 51m 깊이의 파일을 박고, 3천4백톤에 달하는 철골구조물을 설치한 뒤, 수면 위 36미터 높이에 헬기 이착륙장 및 첨단관측장비를 탑재한 약 4백평 규모의 세계 최대 과학기지를 건설, 무인 자동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의 서남쪽에서 무려 81해리(149km)나 떨어져 있는 이 해양과학기지가 우리 어항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닌 재난의 대명사인 무법자 태풍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시작된 탓에 태풍은 약 11개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장기에보가 나와 있다.

다행스런 일은 다른 해에 비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숫자가 다소 적어 조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로 다른 해보다는 태풍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약 40%가 이곳 기지를 지나 10시간 후쯤 남해안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불확실한 이동진로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 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규모가 크다는 사실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의 기상상태는 과거와는 달리 국지성 호우 등 게릴라식 출몰이 빈번한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한쪽에서는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집중호우를 퍼붓는 그런 형국이다.

따라서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 이어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의미는 태풍의 진로를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태풍의 발달과 소멸상황 및 이동경로를 어느 수준까지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해 줄 터이니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는 스스로 잘 갖추어 적어도 인재 피해만큼은 막아보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석산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파제 선단부의 사석재 보호를 위해 TTP를 가져치 해야 하며, 장비는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야적 중인 자재는 창고로 이동시키거나 배수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됐다. 만약 이런 기본 대책조차 지키지 못해 태풍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어항인이 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할 일이 있다. 우리나라 태풍은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태풍기와 주요한 공정이 겹치지 않도록 발주 및 완공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시공하는 어항인의 외형적인 손실이자 궁극적으로는 국가도 손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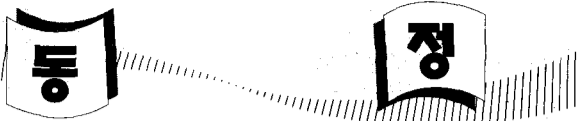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연간 기상재해로 입는 피해 금액은 자그마치 2천억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위해 그 10%인 212억원이 투입됐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켜 보자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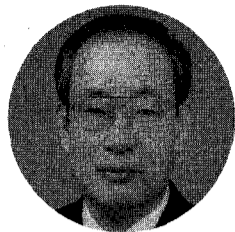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태풍에 최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태풍기에 접어들고 있다. 태풍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 시험대에 올라 있음을 명심하자.

태풍피해를 최소화하자



### 안전관리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수여



**許成寬** 해양수산부 장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3일 군산지역을 순시하고 재정집행 현장을 점검, 4일에는 대산지역을 순시하고 재정집행 현장을 점검 이어 대양상선 창립10주년에 참석 축하, 7일에는 안전관리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거행, 12일에는 부산해경,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부산지역을 순시, 19일에는 청평내수면 연구소를 순시하고 재정집행 현장을 점검.



**裴平岩** 한국어항협회장  
 ▲배평암 한국어항협회장은 7월8일 수우회주관 해양수산부차관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10일에는 해양수산부를 방문 현안업무 협의를,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7월7일 수협 2층 강당에서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의 신 수협운동' 결의대회에 참석, 7월10일

에는 아크나자로바 키르키즈스탄 노동사회부 장관의 방문을 받고 선원연수 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  
 ▲고체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7월14일 광주한마음 장학재단 이사회에 참석, 21일에는 광주시장초청 원로 자문단회의에 참석, 이어 사회복지운영위원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증진회원초청 간담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4일 범죄예방 광주지역협의회 장학재단 창립총회에 참석, 13일에는 제16회 한국사회인검도대회 개최식에 참석, 14일에는 광주한마음장학재단 이사회에 참석, 22일에는 광주역 이전축구 범시민결의대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3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7월8일에는 대한건설협회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참석, 7월18일에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조달청주관 건설업체 간담회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7월21일 한국항만협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용국 △자율관리어업지원단 방태진(7.7) □사무관급 인사 △기획관리실 서정호 △해양정책국 최명범 △수산정책국 김우현 △어업지원국 김병찬 △노병환 △신현석 △국제협력관실 정충모 △국립해양조사원 이재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윤경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박재호 △"송현무 △"윤석홍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추진기획단 어재혁(7.10) △해양정책국 강정규(8.1) △장관비서관 서병규 △수산정책국 선원표(7.14)

#### 의 비 남 부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사장 박성태)
  - ▲주식회사유일종합기술단(회장 이희운)
- 개인
  - ▲김현주씨(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홍석씨(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이사)
  - ▲전충남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조동영씨(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 부 음

- 개인
  - ▲조홍제씨(주식회사새건설 회장)가 지난 7월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 인 사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설립추진기획단 김양수 △"윤분도 △"이

## 고성군 거진항이 가로등 설치로 밝아진다

고성군은 거진항과 간성 시가지 구간에 대해 야간조업 어선 입·출항과 어획물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해 관광복합항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거진항은 군비 4천200만 원을 들여 북방방파제 물량장 끝에서 고성군 수협 앞까지 470m 구간에 2등용 스텐레스 가로등을 설치한다.

간성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천 7호선국도 삼거리간은 가로등이 노후화와 부식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8천만 원을 들여 전면 교체키로 했다.

7월말까지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은 조도를 높이고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주민들의 수면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빛반사판이 부착된 가로등을 설치키로 해 관광광성의 이미지 개선에 많은 효

과가 기대된다.

또 가로등 설치로 거진항이 밝아지면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조업 등으로 어민소득증대와 태·폭풍 시 어선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피서지 범시민 대청결운동 전개

동해시가 피서철을 맞아 망상·어달·추암해수욕장 무릉계 등 관광지를 대상으로 범시민 대청결운동을 전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동해시는 최근 시민 공무원 군인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광지와 가로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공원시설 주택시설 하천 등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했다.

시민대청결운동은 통·반장 주민 봉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 주변 관광유원지 도로변 전천 바닷가 등의 생활쓰레기를 내집 앞 등 가까운 곳부터 치우는

시민 참여운동으로 전개해 지난 10일 해수욕장 개장했다.

이번 대청결 운동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항·포구와 방파제 지역, 해수욕장 백사장 및 주변 솔밭, 어촌마을 및 해안도로, 하천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피서철을 맞아 천곡동 등 해수욕장과 시내 중심가를 중심으로 깨끗하게 청소해 동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맑고 깨끗한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어항 배후 유후부지 민간에 매각

### 매각대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

해양수산부는 어항배후공간의 이용과 기능을 증진시키고 배후시설 개발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지 않은 국가소유의 어항 유후부지를 수협·어촌계, 민간인 등에게 매각한다.

매각대상은 수익성 있는 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및 관광레저 용도인 어항배후 유후부지로서 전북 격포항, 부산 다대포항, 경남 맥전포항, 제주 신양항, 위미항 등 총 5개항 9천779㎡(2천960평)이다. 어항을 관할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부터 토지측량, 분할, 감정,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지매각대금은 약 15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수익금은 전부 어업인 특별지원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어항과 어촌은 최근 교통·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주5일 근무제 확산에 힘입어 도시민들의 즐겨 찾는 관광·레저 등

해양친수공간으로 이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자연생태 체험의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매각되는 어항 유후부지에 민자를 투자하여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경우 어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업의 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도 충남 홍원항의 유후부지 5천 11㎡(매각수입: 154백만원)를 매각한 바 있다.

## 육상부유쓰레기 해양유입 방지대책 수립

### 해양유입차단막 기술보급과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육상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마다 육상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해수욕장과 해안가로 떠내려와 어장피해와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는 일이 반복되자 해양유입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긴급투입과 지자체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여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 및 태

풍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17만톤의 해양쓰레기를 250억원의 피해복구예산을 긴급지원하여 처리한 바 있다.

## 미조북항 '종합기능어항' 탈바꿈

### 남해군, 311억 들여 수산·관광기능 갖추기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북항이 수산업 지원기능과 관광어항 기능을 갖춘 종합기능 어항으로 개발된다.

최근 남해군에 따르면 3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조면 미조북항에 친수성 방파제 300m와 어선 물량장 120m, 유어선부두 120m, 친수호안 160m, 해안도로 2천749m, 부지 1만9천839㎡를 조성해 수산업 지원 및 관광어항 기능을 갖춘 종합기능 어항으로 개발키로 했다.

군은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는 2005년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7억6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 (주)유일종합기술

단과 미조항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을 맺고 지난 5월 현지조사와 측량,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군은 또 북항의 방파제 신설과 북항 호안도로 겸용 물량장 확장, 남항과 북항 연결도로, 대규모 주차장 조성, 활어위판장 확장 및 재정비, 관광성 대규모 회센터 설치, 수중터널식 관광수족관 건립, 식수전용담 건설을 북항 정비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해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조북항이 종합기능 어항으로 개발되면 지역의 또다른 관광지역과 함께 수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어항청소선 소식

8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8. 4~9 8.25~30	안흥, 모항 말도	최동림	(휴대폰) 011-247-5592
어항 902호	8. 4~9 8.18~23	팽목 벽파	김용익	(휴대폰) 011-243-5590
어항 903호	8. 5~9 8.18~23	녹동 동송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어항 904호	8. 4~9 8.25~30	돌산 국동	박주종	(휴대폰) 011-232-5596
어항 905호	8. 4~9 8.18~23	육지 외포, 지세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어항 906호	8. 4~9 8.18~23	대보 양포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어항 907호	8. 4~9 8.18~23	사천, 안록 속초	최일선	(휴대폰) 016-661-5597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사랑 나라사랑**

**남 몰래 버린 오물 나 모르게 오는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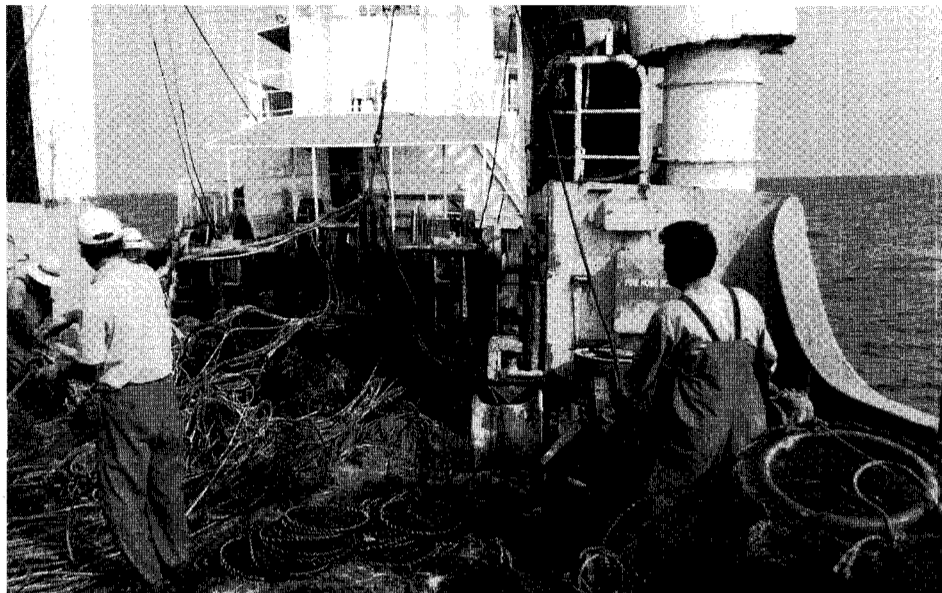
### 한국어항협회 침체어망인양사업 착수

## 왕돌초 주변수역에서 300톤 인양키로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경북 울진군 앞바다 65km지점 왕돌초 주변수역의 침체어망인양사업을 착수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1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왕돌초 주변수역 2만2천ha에서 침체어망 300톤을 인양할 계획

이며, 왕돌초 주변수역의 어족자원 관리와 장기적인 해양환경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어업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0톤급 모선, 50톤급 정화선, 바지선, 현지어선 등의 정화장비와 운반차, 집게차, 포크레인 등의

폐기물처리 장비를 확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양할 계획이다. 한편 KBS중앙방송에서는 7월30일 밤10시에 방영예정인 다큐멘터리 '왕돌초를 깨우다' 제작과 관련하여 작업선에 취재진이 승선, 작업선단 구성 및 작업현장을 취재했다.



■ 왕돌초 주변수역에서 침체어망 인양작업을 하는 200톤급 모선

## 바다쓰레기 시범수매사업 전남지역으로 확대

40l 당 4천원, 200l 당 2만원 수매대금 지급

해양수산부는 바다정화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산지역에서 한국어항협회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바다쓰레기 수매사업을 전남지역으로 확대했다. 바다쓰레기는 어류 등이 폐어구·어망 등에 걸려 죽게 하거나 서식·산란장을 파괴하여 연간 3천243억원의 어업생산액 손실을 가져오고, 전체 해난사고의 약10%를

차지할 정도로 선박의 안전 운항에 위협을 주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다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관심이 높고 확대 실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번에 전남지역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말하고 "대상 지역은 사업수행 의지가 강한 여수와 목포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지역과 같이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미리 배부한 수거용 마대에 조업중 인양한 폐어구·어망과 폐그물, 비닐 등 썩지 않는 바다쓰레기를 담아올 경우 40l 당 4천원, 200l 당 2만원의 수매대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부산·전남지역의 바다쓰레기 수매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사업추진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전국연안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달의 관광어항 '대포항'

설악산 기슭의 깨끗한 바닷가에 자리잡은 대포항은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속의 어항으로 주변에 설악산국립공원과 같은 관광명소와 선도 좋은 횡간이 풍부하여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으며, 지역주민의 생활 근거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동해안 최대의 관광어항이다.

대포항의 최대 자랑거리는 싱싱한 활어회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철에 따라 오징어, 가자미, 명태, 청어 등이 많이 잡히는데 새벽에 조업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면, 각 회집과 상인들은 값을 흥정해 잡아 올린 활어를 사들이고 매일 매일 바다에서 잡아온 싱싱한 활어는 대포항을 찾은 손님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대포항의 회집과 활어 난전에서는 즉석에서 원하는 활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다.

또한 대포항을 찾으면 진입하는 도로 양 옆 노점상에서는 오징어순대, 구운 새우, 양념 발라 구운 오징어 등 이색적인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포항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09년을 목표로 어항시설을 대폭 확충·보완하고 국제적인 관광·레저 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 주변관광지

▽ 설악해맞이공원 (차량으로 2분 거리)  
내물치라 불리던 곳인데 설악해맞이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속초 8경의 하나로서 국내 유명작가의 조각전시물을 볼 수 있으며, 설악권 중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되었다.

### ▽ 외옹치 (도보로 5~10분 거리)

외옹치는 속초시 대포동 끝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바닷가 마을이다. 속초 8경의 하나이로서 해안에 솟은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던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해돋이와 속초의 전경을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꾸며 놓았는데 이곳에서는 동해바다와 속초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 낙산사와 낙산해수욕장 (차량으로 10~15분 거리)  
낙산사는 양

양군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찰 중의 하나로서 특히 일출로 유명한 의상대를 비롯, 흥련암 등을 비롯 원장, 원통보전, 동종 등 문화재가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원장은 낙산사의 담장으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조선시대 초기 담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아울러 낙산사에 오면 동해안에서 백사장이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해변을 보유한 낙산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 여름철 문화답사와 여름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 ▽ 통일전망대 (차량으로 1시간 거리)

고성 통일전망대는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70m 지점에 위치한 전망대는 가깝게는 금강산이, 멀리는 해금강의 대부분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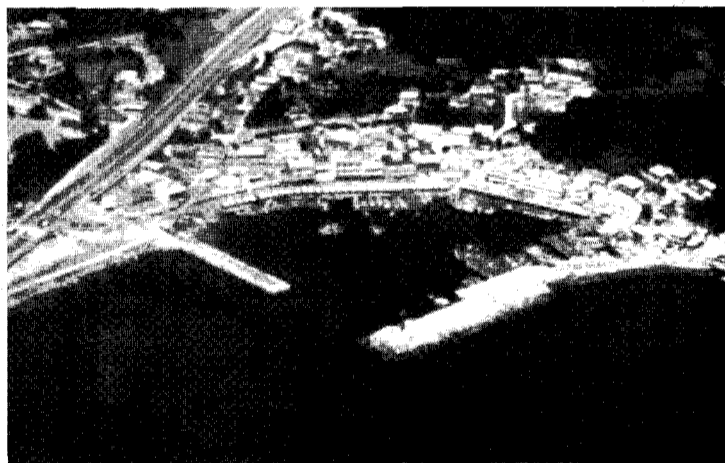
### ▽ 속초해수욕장 (차량으로 5분 거리)

속초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명항과 가까워 매년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줄을 잇는 곳이기도 하다. 해수욕장 앞에는 조도라는 섬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름밤이면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해 해변으로 나와 밤바다를 즐기는 모습이 아름답다.

### 교통편

고속버스 : 속초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내버스 1번, 1-1번, 5번, 6번, 7번, 9번, 13번, 15번, 16번, 18번, 19번, 22번을 이용하여 갈아타면 5분거리 (4정거장).

자 가 용 : 대포항 앞의 도로가 7번 국도이므로 이동 중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곳에 항구입구 해안쪽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또한 대형주차장이 300여 미터 떨어진 남쪽 길 건너 대포항 입구에서 설악산입구(동해콘도)사이로 새로이 조성되어 있다.



## 제1회 어촌어항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한국어항협회는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촌 및 어항과 관련된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제1회 어촌어항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전경이나 어촌어항에서 생활하는 어민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어린이의 손으로 그려 어촌어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품기간은 8월29일까지이며 출품규격은 4절지 규격으로 하며, 이들 작품 중에서 최우수상 1점을 뽑아 협회장 상장과 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며, 우수상 5점에 대해서는 각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작 10점, 장려상 10점, 입선 50점에 대해서는 10만원, 5만원,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6. 출 품 표 : 출품표에 내용을 기재하여 작품뒷면에 부착

작품명 :		
출 품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학 교	전 화 번 호	
	학 교 명	초등학교
	학 년, 반	학년 반
	주 소	
	전 화 번 호	

7. 심 사 : 2003. 9. 5

8. 심사발표 : 2003. 9. 6 (개별 및 소속학교에 통보)

9. 시 상 : 2003.10. 6 (소속 학교장이 전수)

10. 시상내용

- 최우수상(1점) 한국어항협회장 상장 및 부상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
- 우수상(5점) " (각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
- 가 작(10점) " (각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 장 려 상(10점) " (각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 입 선(50점) " (각 30,000원 상당의 상품권)

11. 접 수 처 : 특수법인 한국어항협회

- 주소 ; 110-78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9 인의빌딩2층
- 문의전화 ; (02)3673-2851~4 (담당자 이준호)

12. 기 타 : 출품된 작품은 본회에 귀속되며, 반송하지 않음

### 공 모 요 강

1. 목 적 : 어촌어항과 관련된 소재를 바탕으로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여 어촌어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
2. 주 제 : 어린이가 바라본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전경 혹은 어촌어항에서 생활하는 어민의 밝고 활기찬 모습
3. 응모자격 :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4. 출품기간 : 2003. 7. 15 ~ 8. 29(우편접수시는 마감일 도착분)
5. 출품규격 : 4절지 규격(26.7cm×36.4cm)

